

목포·무안·신안 8명 무투표 당선... 전·현직 맞대결

총 21개 선거구·47명 후보자 등록 서남권 최대 자산 목포농협 3파전 전·현직 조합장 '리턴매치' 잇따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목포, 무안, 신안은 일명 '목무신 선거구'로 서남권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이번 선거에서 총 21개 조합장 자리를 두고 47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그 중 8명의 후보가 선거전 무투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자산규모가 1조원을 웃도는 전남권 대형조합 중 한 곳인 목포농협은 현 조합장 재선 여부로 이목을 집중시킨다.

무안에서는 이례적으로 4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탄생했다. 그 중 삼향농협 나용석 현 조합장은 이번 선거로 6선을 달성했다.

신안에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조합장을 확정시킨 세 곳을 제외한 5곳에서 '임원간 대결'이 펼쳐져 접전이 예상된다.

●목포-3개조합 6명 후보 출마

목포에서는 3개 조합에 6명의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목포농협은 박정수 현 조합장에 배용식 전 이사, 김옥두 전 상무가 치열한 3파전을 벌인다. 3선 도전에 나선 박정수 현 조합장은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최다선 후보로 10선 도전에 나선 오정숙 전 조합장을 제친 바 있어 눈길을 끈다. 목포원예농협은 고평훈 현 조합장과 강영규 전 이사가 맞붙는다. 지난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으로 조합장 자리를 꿰찼던 고평훈 현 조합장과 오래전부터 조합원들의 민심을 다져온 강영규 전 이사의 대결로 선거 열기가 뜨겁다.

●무안-9개조합 14명 도전

총 9개 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무안에는 14명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몽탄농협은 리턴매치 형국이다. 지난 선거에서 김기주 전 조합장의 3선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던 최용주 현 조합장과 김기주 전 조합장 간의 재대결이 펼쳐진다. 앞서 세 차례 선거에서 맞붙었던 두 후보는 이번 선거로 벌써 네 번째 싸움에 나선다.

무안농협에서는 노은준 현 조합장에 김미남 전 조합장이 도전장을 내밀어 리턴매치가 치러진다. 전 선거에서 노은준 현 조합장의 승리로 고배를 마셨던 김미남 전 조합장이 이번 선거에서 설욕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운남농협은 두 명이 조합장 자리를 놓고 격돌한다. 이석채 현

조합장과 정철수 전 이사가 대결한다.

일로농협은 3선에 도전하는 박영수 현 조합장과 김찬일 전 민주당정책위 부의장이 맞붙는다. 민심은 박영수 현 조합장의 3선을 예상하고 있지만 김찬일 전 부의장의 지지세력도 만만치 않아 치열한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계농협은 정도식 현 조합장에 이요진 전 무안의회 7대의 장이 경쟁한다. 두 후보 모두 지지기반이 비슷한 혼전 양상이 보인다.

삼향농협은 지난 선거에서 세 명의 후보를 제치고 6선에 성공한 나용석 현 조합장이 단독 출마했다. 지난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조합장 자리를 다시 꿰찼던 나용석 현 조합장은 무투표 당선으로 마음 편히 당선을 확정 지었다.

목포무안신안축협은 문만식 현 조합장이 단독 출마했으며,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은 배정섭 현 조합장이 단독 출마했다. 무안산림조합은 박병석 현 조합장이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을 낙점했다.

●신안-9개 조합 17명 이름올려

지형적 특성 탓에 조합장 선거 때마다 곤욕을 치렀던 신안이 올해는 무사히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신안에서는 총 9곳 선거구에 17명의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남신안농협은 하의도, 신의도, 장산도를 잇는 곳으로 두 후보가 격돌한다. 김병남 현 조합장과 장래훈 전 감사가 맞붙어 치열한 접전을 보일 예정이다. 도초농협에서는 양강 구도의 대결이 펼쳐진다. 지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경철 현 조합장에 최상호 전 농협 근무 경력이 있는 후보가 도전한다.

비금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세 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져 3파전을 펼친다. 지난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명의 후보를 제치고 조합장 자리에 앉은 최승영 현 조합장이 양광 전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강광원 전 농협신안군조합 본부장과 맞붙어 3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신안농협에서는 '1:1' 매치가 펼쳐진다. 조영범 현 조합장에 김달국 현 신안마늘생산자협 부회장이 경쟁한다. 입자농협도 두 명이 맞붙는다. 주광옥 현 조합장에 진완산 전 농협 직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3파전이 치러질 신안군산림조합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박일용 현 조합장에 맞서 김일중 전 신안군산림조합 감사, 김동우 전 지방공무원 출신 후보가 맞선다.

북신안농협은 양명모 현 조합장이압해농협은 천성태 현 조합장이, 신안수협에서는 김길동 현 조합장이 단독 출마해 각각 무투표 당선됐다. 김은지 기자

목포·무안·신안 출마자

목포	목포농협	목포원예농협	목포수협
1 배용식 (59) 초선대 출 전 목포농협 이사	2 박정수 (65) 초당대 출 전 목포농협 조합장	3 김옥두 (61) 농협대 출 전 목포농협 상무	1 강영규 (59) 목포과학대 출 전 목포원예이사
			2 고평훈 (62) 세한대 석사 전 목포원예농협 조합장
			김청룡 (59) 목포대 대학원 석사 전 목포수협 조합장

무안	몽탄농협	무안농협	삼향농협	운남농협
1 김기주 (62) 목포대 석사 전 몽탄농협 조합장	2 최용주 (59) 초당대 출 전 몽탄농협 조합장	1 김미남 (56) 초당대 대학원 석사 전 6대 무안농협 조합장	2 노은준 (65) 목상고 출 전 무안농협 조합장	나용석 (64) 초당대 출 전 삼향농협 조합장

일로농협	청계농협	목포무안신안축협
1 이석채 (62) 목포대 석사 전 일로농협 조합장	2 정철수 (67) 운남초 출 전 운남농협 이사	1 박영수 (65) 목상고 출 전 일로농협 조합장
		2 김찬일 (62) 목포기계고 출 전 민주당정책위 부의장
		1 정도식 (69) 목상고 출 전 청계농협 조합장
		2 이요진 (70) 목포문태고 출 전 무안의회 7대의장

문만식 (60) 초당대 출 전 목포무안신안축협 조합장	전남서남부채소농협	배정섭 (60) 승실대 명예출 전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무안산림조합	박병석 (67) 목상고 출 전 무안산림 조합장
--	------------------	---	---------------	--

신안	남신안농협	도초농협	북신안농협	비금농협
1 장래훈 (66) 목포방통고 출 전 남신안농협 감사	2 김병남 (64) 목상고 출 전 남신안농협 조합장	1 최상호 (55) 경청고시 고출 전 농협 근무	2 김경철 (62) 세한대 출 전 도초농협 조합장	양명모 (68) 목포과학대 출 전 북신안농협 조합장

신안농협	신안농협	압해농협	입자농협
1 최승영 (67) 목포과학대 출 전 비금농협 조합장	2 양광 (60) 초당대 석사 전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3 강광원 (58) 목상고 출 전 농협신안군조합 본부장	1 조영범 (56) 덕인고 출 전 신안농협 조합장
			2 김달국 (58) 안최고 출 전 신안마늘생산자협 부회장
			천성태 (62) 순천대 출 전 압해농협 조합장

신안수협	신안산림조합	김일중 (67) 목포대경영자과정 수료 전 신안군수협 조합장	신안	박일용 (67) 목포대 석사 전 신안군산림 조합장	김일중 (72) 조선대 출 전 신안군산림조합 감사	김동우 (62) 고구려대 출 전 지방공무원	기호 이름(나이) 학력 경력
1 진완산 (48) 목포과학대 출 전 농협 근무	2 주광옥 (54) 동아보건대 출 전 입자농협 조합장						

농협 전남검사국, 3행 3無 실천운동 전개

곡성군 관내농협 찾아 지도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 노력

농협 전남검사국은 지난 23일 농협 곡성군지부와 곡성 관내농협을 찾아 제3회 동시 조합장선거 관련 공명선거 추진실태를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마감일(22일) 직후 일선현장을 찾아 공명선거 지도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진행됐다.

전남검사국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갑질, 성희롱 등 비위사건 예방을 위해 임직원의 '3행 3무 실천운동'의 생활

화를 당부했다.

'3행 3無 실천운동'은 2023년을 '청렴농협 구현 실천의 해'로 선포한 농협의 전 임직원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항목(청렴·소통·배려)과 근절해야 할 3가지 항목(사고·갑질·성희롱)으로 구성된 범농협 실천운동이다.

이병완 농협 전남검사국 국장은 "지속 가능한 100년 농업을 위해 범농협 임직원 모두가 '3행 3무 실천운동'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농업인·임직원이 함께 성장 발전하는 청렴농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농협자산관리회사 전남서부지사, 농업인 희망동행 프로젝트

농업인에 생필품 전달

농협자산관리회사 전남서부지사(지사장 정인식)는 무안군 삼향읍 농가에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인식 지사장과 농협자산관리회사 직원들이 참석했다.

정 지사장은 중요산업인 농업을 지탱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과 지원을 약속했다.

농협자산관리회사는 설립취지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농협 농업인들의 재기를 북돋고 경제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농업인 희망동행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농업인들의 변제이사과 재기교육을 북돋는데 일조하고 있다.

정인식 지사장은 "농업인 신용회복 컨설팅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인 재기를 돕는 것은 농업과 국가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재기 지원과 경제 활성화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jinyong@jnilbo.com

▶농협자산관리회사 전남서부지사(지사장 정인식)가 무안군 삼향읍 소재 한 농가에 생필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농협자산관리회사 전남서부지사 제공

